

李 桓 (서울大 出版部長)

## I. 머리말

오늘날 우리나라의 전체 대학의 약 반수에 달하는 40여개교에서 大學出版部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역사나 활동 규모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데로 자기 大學內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10여개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大學出版部는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따라서 出版活動에 있어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숨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대학들이 그 어떤 형태, 어떤 규모이건간에 出版部를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大學內에서의 出版活動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韓國 大學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전방적인 성찰이 새로운 차원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 마당에 大學出版의 문제는 당연히 가장 진지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II. 왜 大學出版部는 필요한가

이 기본적인 물음에 대해 우리는 쉽사리 상식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다. 大學의 두 개의 기본적인 사명은 敎育과 研究 즉 지식의 전달과 새로운 지식의 개발이다. 이 두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수시로 참고되고 이용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어야 하고 (圖書館), 또 한편으로는 교육자료의 공급, 새로운 지식의 발표와 보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大學出版의 역할이 문제되는 것은 주로 이 후자의 경우이다. 다시 말해서 大學出版部는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大學에서 요청하는 각종 교재들을 제공하는 한편,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보급될 수 있는 방도를 제공함으로써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진작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大學出版은 圖書館의 기능과 함께 大學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 것으로서, 그것은 단순히 대학의 한 부수적인 기관이 아니라 大學의 본질적인 기능의 필연적인 연장으로서 마땅히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관점에 우리는 다음 두 가

지의 현실적인 상황을 추가하고자 한다. 첫째로 지적할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 해방 이후 거듭되어 온 高等教育의 급격한 伸張이다. 오늘날 각종 대학의 수는 백을 헤아리게 되었고, 대학생의 수는 80만에 육박하고 있다. 이 사실은 고도의 지식 및 전문적 학술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놀라운 증가를 의미하며, 아울러 새로운 知識과 情報를 계속 생산하는 학자 및 연구자, 다시 말해서 高級 著述家들의 수적 팽창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하나의 세기적인 현상으로서 이른바 「知識의 폭발」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産業文明社會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배경을 이루는 기술 및 과학지식은 양과 질에 있어 실로 경이적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지고 보고된 모든 지식(자연과학도 포함)의 절반은 1930년 혹은 그 이후에 발견된 것들이다. 전문적 지식의 관리자이자 동시에 생산자인 大學은 이와 같은 지식의 대홍수를 방관하고 있을 수단은 없는 것이다.

### Ⅲ. 大學出版部는 무엇을 출판하는가

이상과 같은 대학의 특성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학 출판부의 活動領域은 자명해진다.

첫째로 대학의 教育에 필요 불가결한 각종 教材의 개발 및 제작은 大學出版部の 기본적 역할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이 教材는 대학에서의 공통 교양과목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부분의 大學出版部는 출판활동의 기반을 이 교양교재 제작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점차 전공과목을 위한 特殊教材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점 앞으로 개척해야 할 여지는 많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띤 연구보고서 및 학술도서의 발간을 들 수 있다. 아마도 이것이 야말로 大學出版部の 존재 이유이자 가장 뜻있는 역할이 될 것이다. 전문적 지식과 학술정보의 출판자로서 大學出版部는 수요자의 요구에 호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지식과 정보의 생산자들의 강렬한 發表意志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새로운 지식은 그것이 활자화됨으로써 비로소

널리 알려지고 활용되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자극하는 것이다. 大學이 研究의 주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할 때 어찌 研究의 실제적 운반체인 出版에 무관할 수 있겠는가.

끝으로 학술도서 출판의 필연적인 연장으로서 叢書圖擘의 출판을 들 수 있다. 오늘날 고도의 기술문명이 지배하는 시대에 전문적 지식은 大學만의 점유물이 될 수는 없으며, 모든 사회인은 그들의 삶과 生業의 현장에서 수시로 새로운 정보와 판단의 지침을 필요로 하고 있다. 大學에서 깊이 있게 연구된 추상적 지식들은 현실에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된 실용적 지식의 형태로 전환되어 그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大學과 社會를 연결시키고, 이른바 知識의 대중화라도 모하는 것도 大學出版部에 맡겨진 사명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 Ⅳ. 大學出版部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상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 大學出版의 영역은 大學出版部の 운영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大學出版部는 세 종류의 상이한 독자를 (물론 그들은 서로 겹칠 수도 있다) 대상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大學教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제작상 하등의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종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 많은 大學出版部가 교재 제작에 따른 재정적 여유로써 전체 운영의 균형을 힘겹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굳이 숨길 필요는 없다. 世間에서는 이 사실을 과장하여, 그리고 다른 출판활동을 전혀 무시한 채 대학출판부를 비난하며, 심지어 일부 상업출판계에서는 교재 제작에서 손을 뗄 것을 강요하려 들기까지 한다.

우리는 大學出版部の 교양교재 제작 및 공급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 교재의 정가 책정, 저자에 대한 印稅率, 공급방식 등에 관해 우리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교재 제작의 타당성 자체에 대한 부당한 시비는 단

호히 거부한다. 한 大學의 교육이념과 교과과정의 목적에 가장 충실한 교재를 제작할 최적임자는 바로 大學出版部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순수 學術圖書 출판의 경우 우리는 전혀 다른 상황과 마주치게 된다. 이 출판의 대상은 각 전문분야의 학자, 연구가, 학위를 준비하는 미래의 전문가, 좀더 확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그것에 지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고급독자 등 지극히 한정된 범위라는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분야에 따라 상당한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에 있어 그 수자는 대체로 300에서 500,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하로 밀들 때도 있다. 오늘날 圖書製作費의 앙등으로 인해 초판 500부를 제작할 경우 단가 책정이 불가능하며 이것을 강행할 때 막대한 赤字를 감수해야 한다. 무리해서 1,000 부를 제작할 경우에도 판매에는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이로 인한 재정적 압박은 별로 감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권의 책은 그 수요자의 수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專門學術圖書는 소수의 제한된 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독자들에게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資料와 情報이며, 이것들은 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실용적 지식으로 전환되며 갖가지 창조적 활동을 자극할 것이다. 이 전문적 지식의 交流와 普及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출판부는 이 명예로운 임무를 스스로에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大學出版部の 본연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소수의 제한된, 그러나 끊임없이 새로운 學術情報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를 위해, 그리고 쉽사리 출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예나하면 그들의 연구내용은 이른바 상업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불행한 연구가들을 위해 大學出版部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 분야의 출판활동은 大學出版部に 얼마나 가혹한 출혈을 강요하는 것인가? 大學出版部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면 할수록 더욱더 재정적 곤경에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의 宿命인 것처럼 보인다.

끝으로 교양적 성격의 출판에 관해서는 깊게 언급할 필요가 없다. 비교적 광범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社會的 奉仕를 합과 아울러

더 재정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데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 V. 改善方案은 무엇인가

大學出版部の 역할, 운영의 원리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이상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大學出版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로 大學出版의 정착을 위해서는 大學運營의 책임자들, 나아가서는 文教部 당국의 이해있는 關心과 적극적인 支持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大學內에서 오늘날 出版部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볼 때 우리는 많은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大學出版의 중요성에 비추어 出版部는 大學의 핵심적 기구의 하나로 좀더 존중되고 지원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주장이다.

다음으로 학술출판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다. 우리는 해마다 막대한 자금이 政府機關을 비롯한 각종 學術文化財團을 통해 지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대부분의 단편적인 연구들은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고 있으나 한 권의 책을 이루는, 장기간의 중후한 研究들은 발표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정부차원에서나 학술재단에서나 연구 지원정책에 一大轉換을 모색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며, 이 지원 사업에 出版助成의 항목은 마땅히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大學出版部 자체의 내실화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학술출판의 갖가지 난점에 대해 체념하거나 외부로부터의 지원만에 의지하려는 안이한 運營方式을 탈피하여 비즈니스로서 성공하려는 강인한 企業精神과 합리적인 운영의 摸索이 필요하다. 한편 학술출판의 실무를 담당하는 編輯者들의 資質을 향상시켜 大學의 기능과 학술연구 활동에 대한 올바른 認識下에 능동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저자들을 자극하며 그들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